

# 도시인의 사치 성향속에 농민은 울고 있다



김 찬 채  
(본회 안양시흥지부장)

근간 매스컴에 과소비니, 사치성이니 하는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우리 농민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소비와 사치라는 말이 너무도 거리가 멀기에 생각조차 해 볼 겨를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돼지값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니 걱정뿐이다. 돼지 한 차를 출하하고 보면 천둥치는 소리같은 한숨 소리가 나고, 이마의 주름살은 골이 깊어만 간다. 그러니 우리의 귀와 눈에는 사치니, 낭비니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강대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밀려 수입자유화가 되고 보니, 돈만 벌면 된다는 돈벌레 상인들은 외제 상품 수입에 앞다투어 미쳐 날뛰다. 그 사람들의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 모를 지경이다.

내 나라 내 국민의 건강과 내 나라 농민의 고충은 생각 밖이니까 말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한동안 농민의 영역인 양돈업에 뛰어들어 양돈기반을 흔들더니, 제조기간이 긴 돼지고기 통조림을 헐값에 수입하여 외제라고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외제라면 사족을 못쓰는 도시민들은 의심도 없이 마구 사간다. 외제 선호병의 중환자에겐 경쟁심이 또 한 술 더 뜬다. 남이 외제쓰니 나도 뒤질 수 없다 하여 외제만 찾는다. 외제 승용차에 외제 화장품, 외제 식기 및 침대와 가재 도구를 쓰며, 수입 식품을 먹어야 식성이 풀리는 외제 인간들이 바로 농민을 울린다. 분별없이 외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 절제없이 외제를 선호하는 도시 부유층 등 그들의 할아버지는 농민이었고, 아직도 할아버지의 뼈를 농촌에 묻어놓고 개구리가 울창이적 잇듯이 농촌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니... 사치는 일장춘몽이요, 외제는 화를 자초함을 모르는지...

외국 수입식품중 발암물질이 함유된 “자몽”이 국내시장에 판을 쳐서 우리가 생산한 과일류가 곤욕을 치르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포함 여부가 분명치 않은 수입쇠고기가 축산기반을 붕괴시키고, 수입돈육 통조림이 양돈 농민을 슬프게 해 통곡케 한다.

“할아버지가 베푼 덕이 손자 출세의 밑거름이 된다”든지 자작환자수(自作還自授)라든지 하는 말이 있다. 돈에 눈이 어두운 양심없는 수입상인들과 무분별한 외제 선호 도시인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무절제 외제 사치식품으로 키운 자식의 앞날을 걱정해 본 적이 없는지...

매우 간단하다. 수입개방 압력으로 수입자유화가 되어도 수입상인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고, 수입이 되었더라도 국민이 사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대오 각성하여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다.

**이제 우리 양돈인들도 깊은 고뇌속에서 자성할 단계가 온 것 같다.**

**“나”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기보다 “우리”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할 때 미래의 양돈산업은 밝을 것이다.**

이웃 어느 나라에서는 외제를 수입해 와도 국민이 사지 않아서 국가 수상이 앞장서서 외제 구입을 독려했었다. 그래도 국민이 사지 않아 팔리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그 나라 국민성과 애국심이 부럽기만 했다. 우리도 내 뿌리를 생각하고 실낱같은 애국·애족심에 호소하여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남의 것보다 우리 것부터 찾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해 본다.

이제 우리 양돈인들도 깊은 고뇌속에서 자성할 단계가 온 것 같다. “나”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기보다 “우리”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할 때 미래의 양돈산업은 밝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양돈인들은 가장 힘들고 벅찬 일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본다.

첫째, 우리 양돈인들은 남만 탓하고 있을 때는 지났다는 것이다.

양돈경기 불황이 온다고 홍보한 지가 오래 전부터다. 사육두수와 모돈을 감축하라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모두들 청개구리요, 마이동풍이다. 말로만 감축한다며 요리조리 눈치만 보면서 오히려 늘리고 있다. 즉, 불신풍조가 우리 양돈인 머리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생산 과잉으로 돼지값이 내려 울상을 지으면서도 사육두수를 늘리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물론 나도 12년간 양돈을 하면서 사육두수 감축, 모돈감축하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으나 모돈을 늘리고 사육두수를 늘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까닭에 모든 양돈인들은 사육두수 감축에 불감증이 걸렸다. 모든 통계 담당기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확한 관측으로 사육두수 조절을 적절히 해야 할 때가 왔다. 정확한 지시는 청개구리 사고방식을 치유할 수 있으며, 정확한 관측통계 홍보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 양돈인 스스로가 구심점을 확립해야 한다.

어떤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가 우리나라에는 양돈 구심점이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을 보았다. 우리 양돈인 중에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이 많다. 자기만이 최고요, 자기만이 제일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힌 배타적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아집을 버리고 양보하며 타협하고 융화하며 공존한다는 생각들이 부족하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가 존립하고 있는데 또 어떠한 구심점이 필요한가? 대안(對案)의 불처럼 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우회만 하지 말고, 직접 참여하여 다듬고 가꾸며 잘못을 고쳐가며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셋째, 최대한의 봉사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근대 또는 미래의 산업은 봉사정신 없이는 멸망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 양돈인도 국민 식생활에 최대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고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돈육을 공급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생산원가의 절감방안을 위시하여 인력난, 질병퇴치, 폐수시설, 육질개선 등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개발, 선진 양돈정보의 수집과 활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울고만 있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자. **■**